

불황에 뚝 끊긴 '온정'... 아동복지시설 '찬바람'

추석 앞두고 광주·전남 아동양육시설 후원금·물품 급감에 운영 차질 영화·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 엄두 못내고 보습학원 보내기도 힘들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올해 광주·전남 아동 보육기관에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나눔의 손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32곳(광주 10곳, 전남 22곳)에 총 1154명(광주 357명, 전남 79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생활관, 공동생활가정 등 39곳에서도 240여명의 아동들이 보

호를 받고 있다.

아동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아이들이 간식도 먹을 수 없고, 학원도 다닐 수 없게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동안 추석과 설날같은 명절 대목이면 아동양육 시설에는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 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후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광주·전남 지역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물가는 치솟는데 후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아이들의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송하동 신애원의 관계자는 “후원금이 20% 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지난해 일주일에 15팀의 기관·단체가 위문을 왔지만 이번주는 5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신애원에는 현재 45명의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삼푸와 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이 끊임없이 필요하지만 후원금이 줄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이 빠듯해 더 저렴한 생필품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후원금은 기본 생계비 외에 아이들의 문화·체험 학습, 간식 등 부식,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되는 만큼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후원금이 줄어들면 아동들은 간식을 덜 먹어야 하고 문화 생활도 누릴 수 없게 된다.

신애원 관계자는 “후원을 통해 간헐적으로 스포

츠 관람에 나섰지만, 올해는 야구장에 한 번 간 계 전부였다”면서 “아이들이 야구를 가장 좋아하는 만큼 많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화순의 보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역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걱정이다. 매년 명절이면 방문하던 기업과 단체 2-3곳이 올해는 발 걸음하지 않아서다.

화순자애원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으니 여유가 없는 점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 안타깝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부금 제도의 한계도 아동들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들을 보습학원에 보내는 경우 학원비를 운영비로 처리하기 어렵고, 기부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후원자의 후원이 필수인데, 점점 아이들이 기회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50여명이 생활하는 해남군 해남읍 해남동대원의 경우 다행히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기업과 후원자들이 있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남동대원 관계자는 “후원품과 후원금이 들쭉날쭉하다보니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남동대원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후원이 줄면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은 화순자애원장은 “광주와 가까운 전남 지역이나 광양, 여수, 나주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기관과 기업이 몰려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강진, 해남, 장성 등의 전남 지역 보육시설은 기업 등의 후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워 상황이 더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가위 정 나뉘요 11일 광주시 북구 운암2동의 한 경로당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보정협의체 회원, 엠마우스복지관 종사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정성껏 만들어 포장해 온 추석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20대 노동자 한달만의 장례식

장성 한 학교에서 에어컨 설치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 원청·하청업체 대표 분향소 찾아 사과...재발방지 약속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 설치 중 온열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8월 19일자 광주일보 6면)의 장례식이 한 달만에 치러진다.



삼성전자 오치오(왼쪽) 한국총괄 부사장이 11일 광주시 북구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에어컨 설치기사의 분향소를 방문해 유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고 책임자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는 유족이 원청인 삼성전자 오치오 한국총괄 부사장, 발주처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오 부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11일 광주시 북구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청년 노동자 A(27)씨의 분향소를 찾았다.

오 부사장은 고인의 모친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상처를 드러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조사한 뒤 폭염 대책 등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들이 당일 오후 4시 40분께 에어컨을 설치하다 밖으로 뛰쳐나가 구도를 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면서 “사측 관계자들이 아들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부모에게 ‘데리고 가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회사 관계자들은 아들이 쓰러지고 1시간 가량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상태가 위독한데도 그날로 옮겨가 응급조치를 하는 등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A씨 모친은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지켜보겠다”고 응답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대표도 유족에게 사죄를 했고, 이날 오후 김 전남도교육감도 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발주처, 원청, 하청업체 중 단 한 곳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지 않자 유족은 장례를 미루고 광주고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유족은 이에 따라 분향소를 철거하고 12일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

화장실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광주지법, 살인죄 적용 중형 선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번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명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려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A씨는 친부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출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출산했다”면서 “아이가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이들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중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울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